

김리아갤러리, 황도유 작가 개인전 《서른세송이, Thirty-three flower blossoms》전 개최

김리아갤러리는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황도유 개인전《서른세송이》(The Thirty-three Flower Blossoms)를 개최한다.



‘서른세송이 (Thirty-three flower blossoms)’ 전시 알림 포스터

이번 전시는 감정과 기억을 배제하고 순수한 회화적 탐구를 보여주는 연작으로, 작가가 설정한 제약과 규칙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화면 위에 남겨진 획과 색은 논리적 구조 속에서도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감상자에게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황도유는 회화를 단순한 의미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시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 예술적 탐구로 바라본다. 그는 획의 본질과 흔적을 탐구하는 ‘일획론(一劃論)’을 통해 최초의 흔적부터 최종의 흔적까지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물감의 겹침 없이 단층으로 이루어진 그의 화면은 감정과 서사가 배제된 채, 순수한 조형적 질서를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감상자는 색과 선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찾으며 감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전시작인 《서른세송이》연작은 황도유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연장선에 있지만 앨리스를 화면 밖으로 내보내고 풍경의 요소들을 확대해, 색채와 획으로만 구성된 비구상 회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기존보다 더욱 간결한 조형미를 지닌 이번 연작들은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마치 꿈결같은 풍경으로 펼쳐진다. 특히, 34점의 신작 중 많은 광목천 위에 빠르게 그려진 작업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선보이게 되며, 스스로 설정한 규칙과 손의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작가의 회화에 대한 철학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동양화의 획처럼 응축된 힘을 가진 선과 작가 특유의 색감은, 마치 우리나라 백자가 지닌 미완의 미감처럼 완결된 형태보다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깊이감을 강조한다. 황도유의 회화는 얼핏 보면 손길이 덜 닿은 듯한 흔적들의 조합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철저한 탐구와 논리적 구조가 화면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정한 서사가 없는 화면 속에서 감상자는 자유롭게 미를 발견하며, 자연을 담으면서도 닮지 않은 황도유 작가만의 풍경 속에서 몽환적이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최: 김리아갤러리

위치: 김리아갤러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청담동 100-31)

KIMREEAA GALLERY | Gangnam-gu Apgujeong-ro 75gil 5, Seoul, Korea

INSTAGRAM: 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

WEB: www.kimreeaa.com



황도유 작가는 회화적 표현에 깊이 몰두하고 연구하는 예술가로, 섬세한 붓질을 통해 캔버스에 그려지는 그의 작품들은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표현된다. 황도유 작가는 아름다운 색감과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획으로 낮설고 신비로운 예술적 경험을 관객에 선사한다.

황도유 작가는 1987년 생으로 계원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활발한 전시 활동과 협업을 이어오며 탄탄한 컬렉터 층을 구축해왔다. 작가는 획의 겹침을 최소화한 절제된 붓질을 통해, 최초의 흔적부터 마지막 획까지 화면 위에 남겨진 모든 과정을 온전히 드러낸다. 감정과 기억을 최대한 배제한 채 오직 하나의 획, 그 색과 질감에 집중하는 작가의 태도는 화면 위에 추상적인 풍경을 펼쳐내며 관객에게 신비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연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서른-세송이〉에서도 이어진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몽환적인 풍경 속에 앨리스가 존재할 법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서른-세송이〉에서는 손의 불안정한 기능을 회화적 매력으로 전환해 미완의 미감을 강조한다. 이처럼 황도유는 획과 흔적, 기억과 풍경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한다.

이번 신작 〈에덴의 동쪽〉은 동명의 소설이나 영화에서 차용했으나, 그 서사를 따르지 않는다. 특정 내러티브를 전달하기보다는 작품이 지닌 상징성과 감각적 여운에 주목하며, 명제가 환기하는 정서와 분위기 속에서 관람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느낄 수 있다.

The artist is deeply devoted to and engaged in painterly expression, and his works, rendered through delicate brushwork, evoke landscapes that are both uncanny and beautiful. Hwang Do You offers viewers a mysterious and enchanting artistic experience through his refined use of color and concise yet powerful strokes.

Born in 1987, he graduated from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and has built a strong collector base through active exhibitions and collaborative projects.

Through restrained brushwork that minimizes overlapping strokes, Hwang fully reveals the entire process on the canvas, from the first mark to the final stroke. By deliberately excluding emotion and memory, he focuses solely on the individual stroke—its color, texture, and presence—unfolding abstract landscapes that evoke a sense of wonder in the viewer. This approach continues in his series 〈Alice in Wonderland〉 and 〈The Thirty-Three Flower Blossoms〉. In 〈Alice in Wonderland〉, he creates an atmosphere in which Alice might exist within dreamlike landscapes, while in 〈The Thirty-Three Flower Blossoms〉, the imperfect movements of the hand are transformed into a painterly charm, emphasizing the aesthetic of incompleteness.

In this way, Hwang Do You establishes a distinctive painterly world at the intersection of stroke and trace,

memory and landscape. His latest work, 〈East of Eden〉, borrows its title from the eponymous novel and film but does not follow their narrative. Rather than conveying a specific story, the work emphasizes symbolic resonance and sensory aftereffects, allowing viewers to interpret its meaning individually through the emotions and atmosphere evoked by the piece.

His artistic achievements are reflected in the inclusion of his work in major collection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Art Bank and the Marciano Art Foundation.





Hwang Do You
Thirty-three flower blossoms (2024)

acrylic on canvas
193.9×130.3cm





Hwang Do You
Thirty-three flower blossoms (2024)

acrylic on canvas
193.9 × 130.3cm

